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SVC에서 열린 '혁신 소상공인 파이널 오디션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혁신 소상공인 'TOP 11' 선정 온고잉, 파이널 오디션 통합대상

중기부, 파이널 오디션 시상식 개최
9422개사 중 유망 소상공인 선발
80개사 본선 거쳐 최종 11곳 가려
청년 대표 49%·지역기업 78% 비중
식품 분야 66%로 가장 많이 선정

'혁신 소상공인파이널 오디션'에서 주식회사 온고잉이 통합 대상을 받는 등 올해의 혁신 소상공인 'TOP 11'이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에서 '혁신 소상공인파이널 오디션'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기업에는 ▲강원 정선 곤드레를 냉동 건조해 어디서나 바로 먹을 수 있는 건강식 브랜드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강원)' ▲특허 받은 포장 기술로 농산과 전국 소비자를 잇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파머씨드(논산)' ▲장성 황금보리와 술지게미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팻 사료를 만드는 '쥬이코바이오(광주)' ▲남는 비지를 활용해 소화가 잘되는 스프레드, 죽을 개발한 '정담두부집(김천)' ▲증조할머니의 방앗간을 바탕으로 부산에서 체험형 방앗간을 운영하는 참기름 브랜드 '프로제산내(부산)' ▲중주 산나물로 감빠뉴를 만드는 로컬 베이커리 베이커리이와정(충북 충주)'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TOP 11'에는 우수상을 받은 씨니사이드업(전북),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제주), 농협회사법인 안동반가주식회사(경북 안동) 그리고 인기상을 수상한 진가다감(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지난 6월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을 개최해 9422개사 가운데 유망 소상공인 534개사를 선발, 최대 6000만원의 사업과 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아이템 경쟁력, 사업 고도화 경과 등을 평가해 파이널 오디션 참가기업 80개사를 뽑았다.

이번 행사에선 80개사 중 선정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TOP 11'을 시

선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80개사의 49%는 20~30대 청년 대표였으며 지역 기반 기업(78%)도 80%에 육박했다. 분야별로 식품(66%)이 가장 많았고 생활(19%), 뷰티(10%), 패션(5%)이 뒤를 이었다.

통합 대상을 받은 온고잉은 듀유 분말과 그레놀라를 합친 한 끼 셰이크 팩 '유밀(YUMEAL)'을 출시했다. 유밀은 올리브영, 돈키호테 같은 유통 채널에 입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오디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 치열한 도전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였다"며 "많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소비재 기업으로 성장해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시멘트업계, 탄소저감 건축자재 확산 나서

레이콘·건설업계와 통합기술 심포지엄

시멘트업계가 탄소저감 건축자재 적용 확대를 위해 건설, 레이콘 등 관련 산업간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시멘트·레이콘·건설산업 통합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시멘트협회를 비롯해 한국레이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전근식 시멘트협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배조웅 레이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박혁호 한국실크로드시애틀 대표 등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전근식 회장은 "시멘트산업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목표로 공정 효율 개선을 추진중이며 정부 R&D를 통해 원료와 연

료 대체를 뒷받침할 KS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저탄소 시멘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레이콘업계에선 배합기술과 품질관리를, 건설업계에서는 설계기준과 시공, 발주단계에서 변화가 필요하므로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물론 산업간 신뢰제고를 함께 실현해 기준 제정에 나서자"고 전했다.

심포지엄 기조발표에선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건설산업 공급망 혁신과 정책과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정준 연구위원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과 건설소재산업의 기술연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멘트협회 김의철 상무는 "시멘트업계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혼합재 확대 및 클링커 저감 기술이 이미 실증단계에 도달했는데도 KS 및 표준 시행서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탄소중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KS 표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도 현실화 ▲시멘트·건설·레이콘 공동 R&D 지원을 각각 제안했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취향의 발견'으로 B2C 공략

논현동 플래그십에 테마 공간 선포

LX하우시스가 올 하반기 '취향의 발견'을 테마로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인테리어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표 전시장 'LX Z:IN 플래그십'에서 '취향의 발견 전시공간 오픈 데이' 행사도 열었다.

10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취향의 발견'은 유행하는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색상부터 소재, 질감, 마감 등 다양한 디테일까지 개인의 취향을 옳이 반영한 공간 인테리어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8일 행사에는 노진서 LX하우시스 사장, '취향의 발견' 브랜드 앰버서더 노희영 히노건설팅팅 대표, 인테리어·리빙·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플루언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LX하우시스는 '취향의 발견' 테마의 첫 브랜드 앰버서더로 브랜딩 전문가인 노희영 히노건설팅팅 대표를 선정, 'LX Z:IN 플래그십' 전시장 3층에 노희영 대표와 함께 협업해 '취향의 발견' 테마 공간을 구성하고 이번에 오픈 데이 행사를



LX하우시스가 지난 8일 서울 논현동 'LX Z:IN 플래그십'에서 연 '취향의 발견 전시공간 오픈 데이' 행사에서 노진서 LX하우시스 사장(왼쪽)이 노희영 히노건설팅팅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X하우시스

를 가졌다.

노희영 앰버서더는 "LX하우시스는 국내 창호·바닥재·벽장재 시장의 선두 기업인 것은 물론 우수한 여러 자재로 토털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어 이번에 '취향의 발견' 앰버서더를 맡아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수많은 그린(녹색)계열 컬러 가운데 딱 내 취향에 맞는 섬세한 딥 그린 컬러를 만들어 낸 LX하우시스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고객의 세밀한 취향을 인테리어로 실현할 수 있는 브랜드임을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삼성, EHS 히트펌프 전담 교육장 신설

B2B 파트너·설치 엔지니어 교육 강화

삼성전자가 친환경 난방 시스템(EHS) 히트펌프 전담 교육장을 신설하고 설치·서비스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히트펌프 국내 생산 기반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함께 키워 전기 냉난방 시장 확대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 C S 아카데미에 신규 'EHS 히트펌프 전담 교육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2035년까지 고효율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추진에 발맞춰 설치·서비스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다.

기업 간 거래(B2B) 파트너사와 설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EHS 히트펌프 관련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EHS 히트펌프는 자연 상태의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실내 난방·냉방·온수 등을 공급하는 통합 솔루션이다. 주거환경에 맞춘 수배관 설치 설치와 유지보수 역량에 따라 실제 제품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설치·서비스 전문성이 중요하다.

새롭게 마련된 교육장은 다양한 설치 환경을 고려한 실운전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삼성전자는 ▲교번식·축열식 물탱크와 온수 컨트롤 키트 ▲바닥난방 온수 분배기 ▲수배관 설치 ▲팬코일유닛(FCU) 등 실제 설치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창업초기기업 자본잠식 '지원배제 기준' 손본다

중소 옴부즈만, 충남서 현장 간담회
설립 3년 이내 기업 예외기준 검토
2027년 사업공고부터 반영 가능성

창업초기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무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10일 오후 충남 천안에 있는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19명이 참석해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윈트 오석호 대표는 "설비를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먼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남테크노파크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 및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일시적인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설립 3년 이내 기업이 자본잠식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0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충남지역 S.O.S. Talk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옴부즈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충남테크노파크는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사업은 현재 공고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자본잠식 관련 지원 제외 기준과 예외기준은 2027년 해당 사업공고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자동화장비를 생산하는 안마이크론시스템은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최 옴부즈만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한 줄이나 공장 위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현대자동차·기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차세대 ESS 실증 본격화

현대자동차·기아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원익피앤이와 손잡고 사용 후 전기자동차(EV)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새롭게 활용하는 'UBE SS(Use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원익피앤이 등 5개사는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원익피앤이 동탄 사업장에서 'EV 사용 후 배터리 기반 UBESS 실증 협력'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차세대 ESS 사업 모델의 검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5개사 공동 사업모델 검증 E-GMP 배터리 200kWh 설비 구축

이날 행사에는 황용태 현대차·기아 EV 에너지전략실장, 주승탁 LG에너지솔루션 ESS사업부 EaaS사업담당, 이상훈 현대엔지니어링 자산기획실장, 김철호 원익피앤이 충전기사업부문 개발·생산본부장 등 참석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현대차·기아의 전용 EV 플랫폼 'E-GMP'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팩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실증 설비는 총 200kWh(킬로와트시) 규모의 UBESS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양성운 기자 ysw@